

M\*OBO\*M  
M\*OBO\*M  
M\*OBO\*M  
M\*OBO\*M  
M\*OBO\*M

FESTIVAL  
BO\*M

SEOUL  
2009  
3\*27-4\*12

페스티벌 봄 2009  
국제다원예술축제  
2009.3.27~4.12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시티극장  
성남아트센터  
LIG 아트홀 / L Space  
테이크 아웃 드로잉  
하이퍼텍나다  
한강유람선상

{ 주최 }  
**페스티벌 봄**

Festival Bo:m 2009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Art  
Festival  
2009.3.27~4.12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  
**경기문화재단**  
**루프트한자**

{ 협력기관 }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시티극장**  
**성남아트센터**  
**(주) 영화사 진진**  
**하이퍼텍나다**  
**LIG 아트홀**  
**아르코미술관**  
**테이크 아웃 드로잉**  
**독일문화원**  
**이탈리아문화원**  
**계원디자인예술대학**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Project Group ®**  
**BOZAR Center for**  
**Fine Arts, Brussels**  
**ICK Amsterdam**

{ 협찬 }  
**LIG 손해보험**  
**도서출판 길**  
**(주) 시엔한강랜드**  
**미디어빈**

{ Organized by }  
**Festival Bo:m**

{ Supported by }  
**Ministry of Culture,  
Sports&Tourism**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ts Council Korea**  
**The Korea Foundation**  
**GyeongGi Culture  
Foundation**  
**Lufthansa**

{ Cooperated with }  
**Arko Arts Theater**  
**Arko Contemporary  
Theater**  
**Seong Nam Arts Center**  
**Jin Jin Pictures**  
**Hypertheque NADA**  
**LIG Art Hall**  
**Arko Art Center**  
**Takeout Drawing Arko**  
**Goethe-Institute Korea**  
**Italian Cultural Institute  
in Seoul**  
**Kaywon School of  
Art and Design**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  
**Project Group ®**  
**BOZAR Center for**  
**Fine Arts, Brussels**  
**ICK Amsterdam**

{ Sponsored by }  
**LIG Insurance, co. ltd**  
**Ghil Publisher**  
**C&HangangLand**  
**Media Bean**

페스티벌 봄  
2009.3.27~4.12

페스티벌 봄은  
국내외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을 아우르는  
국제다원예술축제이다.

페스티벌 봄은  
새로운 형식과 태도  
그리고 자신만의 예술적 비전을 제시하는  
국내외 아티스트의 작업을  
제작한다.

페스티벌 봄은  
국내외 혁신적인 예술작품을  
소개한다.

페스티벌 봄은  
실현정신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신인 발굴에  
중점을 둔다.

페스티벌 봄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 특히 아시아 아티스트를  
발굴, 소개한다.

페스티벌 봄은  
매년 봄 3주간 서울시 다수의 극장과 미술관에서  
펼쳐진다.

Festival Bo:m  
2009.3.27~4.12

Festival Bo:m  
is an annual international festival of  
interdisciplinary arts,  
combining performing arts  
and visual arts.

Festival Bo:m  
is committed to innovations in  
artistic expressions.

Festival Bo:m  
produces art works by international artists with  
unique visions and  
approaches.

Festival Bo:m  
facilitates experimentation and  
strives to discover  
young artists.

Festival Bo:m  
embraces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with particular commitment  
to support Asian artists.

Festival Bo:m  
takes place for three weeks every spring  
in theaters and cultural spaces  
in Seoul.

## 축사

2009 페스티벌 봄 개최를 축하합니다.

‘페스티벌 봄’은 지역과 장르의 벽을 뛰어 넘어 혁신적인 예술작품을 소개하고 현대예술의 새로운 경향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공연예술문화의 활성화와 국제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욱 ‘페스티벌 봄’이 기존의 예술형식에 얹매이지 않는 실험정신을 가진 아티스트들과 대중이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제문화교류에 큰 역할을 맡는 축제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 축사

공연예술문화의 활성화와 국제교류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페스티벌 봄은 지역과 장르의 벽을 뛰어 넘어 혁신적인 예술작품을 소개하고 현대예술의 세계적인 경향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에 페스티벌 봄이 기존의 예술형식에 얹매이지 않는 실험정신을 가진 아티스트들과 대중이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문화교류에 일익을 담당하는 대표적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안호상

## Greeting

I offer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2009 opening of Festival Bo:m.

By being a trailblazer to lead new trend of contemporary arts and to introduce the innovative arts beyond the limit of genres and regions, I look forward to seeing Festival Bo:m breaking new grounds in intercultural exchanges of ideas as well as in performing arts.

I sincerely hope Festival Bo:m will play a large role in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to consolidate the meeting between experimental artists and the spectators.

Thank you.

— Yu, In-Chon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Greeting

Festival Bo:m has contributed to the diversification of art forms and culture. It is my firm belief that Festival Bo:m will once again bring to Korean audiences groundbreaking and mind-opening art beyond cultural boundaries and genres and that it will play a leading role in contemporary art.

I also wish that Festival Bo:m will open a new horizon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viding valuable opportunities for the innovative artists to meet with the public.

Thank you.

— Ahn, Ho Sang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리미니 프로토콜, ‘카를 마르크스: 자본론 제1권’

Rimini Protokoll, *Karl Marx: Das Kapital, Erster Band*

4

더글라스 고든 & 필리페 파레노, ‘지단: 21세기의 초상’

Douglas Gordon & Philippe Parreno

*Zidane: A 21st Century Portrait*

6

포스트 엔터테인먼트, ‘스펙타클라’

Forced Entertainment, *Spectacular*

8

## 서현석

‘팻쇼: 영혼의 삼겹살, 혹은 지역에 모자라는 한 걸음’

Hyun Suk Seo

*Fat Show: Soul Fat, Or One Step Short of Hell*

10

에미오 그레코 | PC, ‘지옥’

Emio Greco | PC, *Hell*

12

알렉산더 클루게

‘이념적 고물로부터의 뉴스:’

마르크스-에이젠투인-자본론’

Alexander Kluge

*Nachrichten aus der ideologischen Antike:*

*Marx-Eisenstein-Das Kapital*

14

크리스티나 블랑코

‘네모\_화살표\_달리는 사람’

Cristina Blanco

*cUADRADO\_fLECHA\_pERSONA qUE cORRE*

16

임민욱, ‘S.O.S.’

minouk lim, *S.O.S.-Adoptive Dissensus*

18

빌 모리슨, ‘디케이시아’

Bill Morrison, *Decasia*

20

이바 메이어-켈러, ‘데스 이스 서튼’

Eva Meyer-Keller, *Death Is Certain*

22

벨기에-한국 댄스 프로젝트

‘한국의 스크린 – 4개의 독무’

Belgium-Korea Dance Project

*Korean Screens – 4 Solo Dances*

24

백현진, ‘THE END’

Hyun Jhin Baik, *THE END*

26

니콜라스 게이어할테, ‘일용할 양식’

Nikolaus Geyrhalter, *Our Daily Bread*

28

정금형, ‘7가지 방법’

Geum Hyung Jeong, *7Ways*

30

에미오 그레코 | PC, ‘비욘드’

Emio Greco | PC, *Beyond*

32

{ 페스티벌 봄 부대행사 }

{ Festival Bo:m Events }

34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Das Kapital*)»이 무대에서 충실히 해석될 수 있을까? ‘세미-다큐멘터리’ 형식의 연극을 개척해온 극단 리미니 프로토콜은 마르크스의 불후의 고전에 도전한다. 이제는 고전이 된 책이지만, 실제로 완독을 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 시대에 이 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연출가 헬가르트 하우크(Helgard Haug)와 다니엘 베젤(Daniel Wetzel)은 이 작품을 위해 전문 배우가 아닌,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받은 실제 인물 아홉 명을 무대에 올린다. 신용카드의 적립금에 돈을 보태 비싼 양복을 맞춘 초기 모택동 추종자, 백만장자 되기를 꿈꾸는 맹인 콜 센터 직원 등이 도서관 거실에서 커피메이커와 촉음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 작품의 한국 버전을 위해서 «자본론»을 한국어로 번역한 **강신준도** 참여한다. 이들의 대화를 이끄는 힘에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가? 그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채색하는가?

리미니 프로토콜은 기센(Giessen)대학의 실용공연과학과 퍼포먼스 학과 출신의 스텐판 카에기(Stefan Kaegi), 헬가르트 하우크, 다니엘 베젤이 조직한 양상블로, 특정한 역할 분담 없는 열린 공동 작업을 통한 수십 편의 ‘세미-다큐멘터리 연극’을 만들어 왔다. 실존 인물들의 진술을 무대화하여 현실과 허구의 간극을 허무는 그들의 독특한 작업방식은 연극의 언어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시킨다. 한국에는 ‘관객’과 ‘공연자’와의 1:1 전화통화로 이루어지는 ‘콜 커터(Call Cutta)’(백남준아트센터)가 소개된 바 있다.

## 연극 / 다큐멘터리 / 영상 / 개념미술

독일

3.27 금 8pm / 3.28 토 6pm

아르코예술대극장

**Theater / Documentary / Film / Conceptual Art**  
Germany  
3.27 Fri 8pm / 3.28 Sat 6pm  
Arko Arts Theater Main Hall

Can a stodgy economic treatise be turned into a disarming stage performance? Rimini Protokoll has taken up the challenge and is staging the first volume of Karl Marx's *Das Kapital*. A classic, it's true, but who has ever actually read it? Directors Helga Haug and Daniel Wetzel have called on eight people whose expertise comes from experience – not professional actors, but people whose lives have somehow been influenced by Marxist thinking. A former Maoist who traded in his membership card for a high-quality bespoke three-piece suit; a blind call-centre employee who dreams of taking part in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Both tell their stories in a library cum living room, between the coffeemaker and the gramophone. What drove them? And in what way did the ideology color their lives?

Photo © Sebastian Hoppe



[ By ]

Helgard Haug  
Daniel Wetzel

with

Christian Spremberg

Thomas Kuczynski

Talivaldis Margevics

Franziska Zwerger

Jochen Noth

Ralph Warnholz

Ulf Mailänder

Sascha Warnecke

[ Stage ]

Helgard Haug

Daniel Wetzel

in cooperation with

Daniel T. Schultze

[ Dramaturgie ]

Andrea Schwieger

Immanuel Schipper

[ Light Design ]

Konstantin Sonnenson

[ Sound ]

Frank Bochle

Creation of the  
Asian version of the *Capital*  
stage set

[ Technical Director ]

Eiji Torakawa + Karasuya

[ Assistant to the ]

Technical Director ]

Megumi Sato

[ Stage Manager ]

Kazuhiko Nakahara

[ Stage Set ]

Eisuke Ozu

[ Properties ]

Kayoko Kuriyama

Awarded with

Mülheimer Dramatikerpreis 2007

[ 협력기관 ]

독일문화원

[ 후원 ]

루프트한자

[ 협찬 ]

도서출판 길

할리우드 고전 영화를 느리게 연장하는 영상설치 작업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영상작가 더글라스 고든 그리고 이미지의 근원적 속성에 대하여 성찰해온 알제리 출신의 영상작가 필리페 파레노에게 20세기 최고의 축구인 중 한 명인 지단은 너무나 빠른 대상일지 모른다. 그들이 지휘하는 15대의 35mm 고성능 카메라와 미군이 제공한 2대의 슈퍼확대 카메라가 포착하는 것은 하나의 경기, 한 명의 슈퍼스타이지만, 그 다각적인 시선은 펠름에 기록되는 즉각적 사실을 넘어 신체에 감춰진 모호한 시적 절실함에 다가간다.

장편 영화라는 형식으로 완성된 이 작품은 스포츠 다큐멘터리와 개념미술의 묘한 간극에서 축구와 시를 하나로 융합한다. 모과이(Mogwai)의 긴장감 넘치면서도 몽환적인 음악은 승부가 갈리는 그라운드 위의 갈등을 합축적인 ‘20세기의 초상’으로 승화한다.

더글라스 고든은 기억에 관한 문제들을 다양한 형태의 반복과 시간의 왜곡으로 풀어내는 비디오 작품들로 잘 알려진 스코틀랜드 출신의 미술 작가이다.

알제리 출신의 필리페 파레노는 습득한 재료를 재활용하여 극적인 의미의 증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미지의 기호적 속성에 대한 성찰을 소통해 왔다.

지네딘 지단은 2006년 월드컵 직후 은퇴하기 전까지 월드컵, 유로컵,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모두 들었다.

이 영상 작품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 선수 조지 베스트가 한 경기를 뛰는 모습을 실제 시간으로 담은 헬무트 코스타르 감독의 1971년 영화 ‘새롭게 보는 축구’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이다.

Halfway between a sports documentary and an conceptual art installation, *Zidane* consists in a full-length soccer game (Real Madrid vs. Villareal, 23 April 2005) entirely film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cer superstar Zinedine Zidane.

This film was inspired by Hellmuth Costard's *Soccer As Never Seen Before* (1971), in which he filmed, in real time, with eight 16mm cameras, the legendary player George Best for the entirety of one game.

Scottish video artist Douglas Gordon manipulates time to question our memory and perception.

Algerian-born video artist Philippe Parreno interrogates the nature of images, often by reconstructing pre-existing materials.

Zinedine Zidane's career accomplishments include 1998 FIFA World Cup, Euro 2000 championship, and 2002 UEFA Champions League championship. He retired from professional football after 2006 FIFA World Cup.

Still photo © Douglas Gordon & Philippe Parreno



비디오아트 / 음악 / 다큐멘터리 / 개념미술 / 스포츠

프랑스, 아이슬란드

3.27 토 7:20pm / 3.29 일 6pm

하이퍼텍나다

Video Art / Documentary / Music /

Conceptual Art / Sports

France, Iceland

3. 27 Fri 7:20pm / 3.29 Sun 6pm

Hypertheque NADA

[ Music ]

Mogwai

[ Production ]

Anna Lena Films

Naflastrængir Zinedine Zidane

연극의 언어와 형식에 파격적인 변혁을 가해온 팀 이첼스(Tim Etchells)가 이끄는 ‘포스트 엔터테인먼트’는 ‘포스트드라마틱 시어터’의 선구자로 평가 받는 당대 최고의 실험극단이다. 즉흥적 창의력과 집중적인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몇 달에 걸친 공동작업은 영화, 음악, 문학, 시각미술의 경계를 초월한다.

‘스펙타클라’는 무대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대한 관객의 안일한 기대를 뒤흔든다. 해골 의상의 배우는 죽음의 공포나 초자연적인 권능을 지닌 것처럼 행동하지만, 불안을 앞서 우리를 자극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통념과 식상한 기억들이다. 과연 죽음을 제대로 재현하는 연극은 무엇일까? 제대로 된 ‘연기’란 무엇이며, 관객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고상한 멜로드라마와 부조리한 유머 사이에서 창출되는 도발적인 유희는 예술적 창조에 대한 질문으로 변형된 채로 관객에게 던져진다.

1984년에 창설된 영국의 포스트 엔터테인먼트는 예술감독인 팀 이첼스(Tim Etchells)와 디자이너 리차드 로우든(Richard Lowdon), 그리고 연기를 맡는 로빈 아서(Robin Arthur), 클레이어 마샬(Claire Marshall), 캐시 네이든(Cathy Naden), 테리 오코너(Terry O'Connor) 등 모두 여섯 명으로 조직된 양상罢了이다.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참여자들의 균등한 위치에서의 집단 창작을 통해 작품을 구성한다. 한국에서는 ‘퀴즈라!’(백남준아트센터)가 공연된다 있다.

{ 작가와의 대화 }      포스트  
엔터테인먼트  
4.1 수 9:30pm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연극 / 퍼포먼스  
영국  
3.31 화 8pm / 4.1 수 8pm  
아르코예술대극장

A lone performer takes to the stage, explaining that the show we're watching is somehow different tonight. The atmosphere is different, his entrance was off, the lights are wrong, some scenery is missing, some performers are absent. The tone is all wrong. Things are somehow falling to pieces, or maybe things are just now falling into place. The audience reaction, our protagonist says, is not quite what he expected, not quite what he's used to. Perhaps the fact he is dressed as a skeleton has something to do with it.

*Spectacular* is about the now of the performance moment, the trembling edge of laughter, possibility and invention. It's about death and playing dead, about the strange contact between two performers on-stage and an audience caught between what they are watching and what they are being told.

{ Artist Talk }      Forced Entertainment  
4.1 Wed 9:30pm  
Arko Arts Theater Main Hall

Photo © Hugo Glendinning



Conceived and devised  
by Forced Entertainment

[ Performers ]  
Robin Arthur  
Claire Marshall  
[ Direction ]  
Tim Etchells  
[ Text ]  
Tim Etchells  
Robin Arthur  
Forced Entertainment

[ Design ]  
Richard Lowdon  
[ Lighting Design ]  
Nigel Edwards  
[ Production ]  
Ray Rennie  
Francis Stevenson

Forced Entertainment is  
Robin Arthur,  
Tim Etchells  
(Artistic Director),  
Richard Lowdon (Designer),  
Claire Marshall,  
Cathy Naden and  
Terry O'Connor.

[ General Manager ]  
Eileen Evans  
[ Administrator ]  
Gareth James  
[ Marketing Manager ]  
Sarah Cockburn  
[ Administrative Assistant ]  
Natalie Simpson

[ Co-producers ]  
BIT Teatergarasjen  
(Bergen)  
Hebbel am Ufer (Berlin)  
PACT Zollverein (Essen)  
Les Spectacles vivants –  
Centre Pompidou (Paris)  
Theatre Garonne (Toulouse)  
Tramway (Glasgow)

Forced Entertainment is  
regularly funded by  
Arts Council England and  
Sheffield City Council.

‘팻쇼: 영혼의 삼겹살, 혹은 지옥에 모자라는 한 걸음’

이야기는 한 평범한 듯 이상한 유괴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라진 꿀꿀이의 잘린 손이 쥐으로 배달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꿀꿀이 가족들의 무의식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는 오히려 흐려지기 시작한다. 결국 남는 것은 불온하기 짝이 없는 질문, 질문들뿐이다: 무대 위의 상황은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가? 무대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연극이란 무엇인가?

벌거벗은 패션쇼, 광대 없는 광대극, 혹은 지방기 많은 디너쇼 ‘팻쇼...’는 이에 대한 기름진 단서들을 제공한다.

서현석은 정신분석학적인 주제를 화두로 영상과 관련된 논문을 쓰거나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황금박쥐/요괴인간», «Asian Extreme»(공저), «미국 신보수주의와 대중문화 읽기»(공저) 등의 저서가 있으며, 실험극·컬트 로보틱스(공동연출), 영상설치 전시 ‘실종: 뮤미에르의 ‘기차의 도착’ 리메이크’ 등을 통해 영화 매체가 가진 근원적 속성을 성찰하는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현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실험영화와 다큐멘터리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 작가와의 대화 ] 서현석

4.14 화

계원디자인예술대학 갤러리 27

퍼포먼스 / 뮤지컬 / 무용 / 설치미술 / 텍스트 / 오브제

한국

4.2 목 8pm / 4.3 금 8pm

아르코시티대극장

Fat Show: Soul Fat, Or One Step Short of Hell

The pig family receives a small box, inside which they find a chopped hand of the beloved piglet. The police investigation unearths everyone's subconscious, not the whereabouts of the kidnapper and the child. Drama evaporates from stage, and the fictive emotion evades the characters, leaving behind more disturbing questions: What do the staged events represent? What kind of reality is evoked? What is theater?

An unhealthy dinner show and mime that betrays silence, *Fat Show...* offers fatty clues.

Hyun Suk Seo writes about and makes visual works on various issues pertaining to psychoanalysis. He is currently teaching at Yonsei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Arts.

{ Artist Talk } Hyun Suk Seo

4.14 Tue

Kaywon School of Art and Design  
Gallery 27

Photo © Young-Jin Choi



{ 무대디자인 }

조수현

{ 음향 }

한요한

{ 무대제작 / 특수효과 }

토멘터

{ 영상 }

박성일

{ 무대감독 }

신은정

{ 라이브음악 }

김시준, 윤완식

{ 진행 }

왕시명, 박현만

{ 분장 }

이수연, 조연경

{ 미술 }

홍서연

{ 사진 }

최영진

{ 출연 }

김민종, 김영진, 김예은, 김요아,

{ 영상기록 }

박강아름, 이정의, 이형석

남현우, 말자, 유진희, 이상우,

이지현, 정완영, 채송아 외

{ 조명디자인 }

진스테이지

{ 텍스트 / 연출 }

마선영

{ 런웨이 }

김현정

서현석

조영행, 이현규, 이주혁, 최란

{ 흥보디자인 }

K-SAD

모현선, 말자

탁형선

{ 수화지도 }

최지은, 한상우

{ 도움주신 분들 }

강윤자, 권승열, 권총,

김동기, 김승미 (서울예대),

김연희 (연세대),

박지홍 (단국대), 안은미,

이갑례, 이미지, 이정숙,

조성현, 최혜숙, 최흥준,

홍성민 (계원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다원예술분야 지원 작품

경기문화재단 다원예술분야

지원 작품

K-SAD 다원예술공연 지원 작품

아르코시티극장 공동기획 작품

Performance / Musical / Dance /

Installation / Text / Objects

Korea

4.2 Thu 8pm / 4.3 Fri 8pm

Arko City Theater

불후의 고전 단테의 «신곡»은 종교의 기능이 달라진 오늘  
날 어떤 의미를 가질까?

‘2007년 유럽 비평가와 프로듀서가 뽑은 최고의 작품’으  
로 선정된 ‘지옥’은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4부작  
중 첫 번째로, EG | PC의 최고의 명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  
니다. 4년에 걸쳐 완성된 이 걸작이 떠올리는 지옥의 형상  
은 고통과 절규로 얼룩진 클리셰가 아니다. 저주받은 영  
혼은 경쾌한 율동에 몸을 맡기고, 지옥의 사자는 인간의  
영혼에 유혹된다.

죽음의 나무와 빛의 문, 화려한 디스코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병적인 우울함과 신경과민적인 고통이 부조리하  
게 충돌하며 만들어 내는 육체의 시는 단테의 단도직입적  
인 언어를 현대인의 영혼 속에 공명시킨다. 지루한 듯한  
지옥의 아카들과 자극적 평범한 지옥의 사자들의 현란한  
교류는 빛과 어둠, 삶과 죽음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다. 무  
용과 연출로 뭉친 두 아티스트들의 예술적 영혼은 무대를  
지옥의 열정에 빼트린다.

에미오 그레코와 PC는 1995년 이래로 새로운 댄스 형태를  
위해 공동 연구 작업을 해왔다. 그들은 둘 다 환영의 몸을 표  
현하는 춤의 형태와 그 몸에 외적 영향을 미치는 극장 공간  
과 함께 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한국에서는 ‘더  
블 포인츠 1&2’(모다페 2003), ‘Conjunto di NERO’(모다페  
2004)를 공연한 바 있다.

이 작품은 성남아트센터와 패스티벌 봄이 공동 주최하는 작  
품입니다

[ 작가와의 대화 ] 에미오 그레코 | PC

4.5 일 7pm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무용 / 연극

이탈리아, 네덜란드

4.4 토 5pm / 4.5 일 5pm

성남아트센터 오페라극장

In *Hell*, Greco and Scholten delve deeper into the layers of dance, they explore the components of different directions in dance and look at how they are read and decoded. It is a search for ways to extend the boundaries of our physical identity, ways to unleash the unpredictable body.

In the creative process existing connotations of and associations with the notion of hell are broken down and deconstructed in order to be able to rebuild a new meaning. Greco and Scholten find their inspiration in both the visual arts, the performing arts and literature, more specifically in Dante’s Inferno and the allegro con brio of Beethoven’s Fifth.

*Hell* is made possible by the Doris Duke Fund for Dance of the National Dance Project, a programme administered by the New England Foundation for the Arts with funding from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the Doris Duke Charitable Foundation, and the Ford Foundation.

{ Artist Talk } Emio Greco | PC

4.5 Sun 7pm

Seong Nam Arts Center  
Opera House

Photo © Laurent Ziegler



[ Dancers ]

Ty Boomershine  
Vincent Colomes  
Sawami Fukuoka  
Emio Greco  
Nicola Monaco  
Suzan Tunca  
Neda Hadji-Mirzaei  
Marie Simnaeve

[ Production ]

Emio Greco | PC  
[ Co-production ]

Théâtre de la Ville (Paris)  
Festival Montpellier

Danse 2006 (Montpellier)

Maison de la Culture

d’Amiens (Amiens)

barbicanbite07 (London)

Cankarjev Dom (Ljubljana)

Jolidans 2006 (Amsterdam)

[ With special thanks to ]

Maison de la Culture d’Amiens  
for hosting the creation  
residency

MAPP International

Productions, New York

ATER, Modena

[ Premiere ]

Festival Montpellier  
Dance 2006,  
28 June 2006

ICKAmsterdam is supported by  
the Netherlands Fund for  
Performing Arts+ (NFPK+) and  
the municipality of Amsterdam.

eg|pc ICKAmsterdam

[ 공동주최 ]  
성남아트센터  
[ 협력기관 ]  
이탈리아 문화원

알렉산더 클루게

·이념적 고물로부터의 뉴스:

마르크스-에이젠슈테인-자본론

역설적이게도, 뉴 저먼 시네마의 ‘대부’는 더 이상 영화를 만들지 않는다. 변호사이자 사업가이며 텔레비전 제작자 이자 정치적 행동주의자인 클루게는 저항과 혁혁이 관습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말대로 “거대 기업의 상품화와 산업화가 이제 인간이란 존재의 내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판에, 이에 대한 ‘대항적 공론의 장’은 기존의 방식보다 더 유기적이고 다각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텔레비전 제작에 집중하던 클루게가 침묵을 깨고 만든 ‘영화’는 그가 평소에 말해 온 우회를 통한 ‘영화의 재정립’을 또 다른 영역으로 이동시킨다. 그의 모든 활동의 근원 중 하나인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으로 돌아간다. 시간을 초월한 대화에는 엥겔스의 변증법 철학을 영화에 심고자 노력했던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이 포함된다. 1929년 제임스 조이스와 만나 구상했던 마르크스의 ‘자본론(Das Kapital)’을 영화화하는 꿈을 80년 만에 클루게가 이루는 셈이다. 결과는 570분에 걸쳐 이어지는 대화의 대장정이다.

‘자본론’이 오늘날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클루게는 그의 가장 탁월한 특기를 발휘한다. 바로 ‘대화’이다. 개방적이면서도 예리하고 냉철하면서도 섬세한 클루게 특유의 대화방식은 대화 상대의 사유의 심도를 깊이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독일의 많은 지식인들의 가슴으로부터 예술, 과학, 철학, 정치 등에 걸친 그들만의 ‘마르크스’를 이끌어낸다. 그의 말대로 ‘인간’을 들여다 보는 것이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진부함을 극복하는 길이다.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권유로 1960년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클루게는 1962년 오버하우젠 선언 이후 영화와 텔레비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해왔다.

영화 / 다큐멘터리 / 에세이 / 토크쇼

독일

3.27 금 자정 (3.28 금 0:00am)

하이퍼텍나다

In German without subtitle

Alexander Kluge

Nachrichten aus der ideologischen Antike:

Marx-Eisenstein-Das Kapital

Films from ‘antiquity’ and films of the ‘modern era’

The new series kicked off with Alexander Kluge who is equally adept at winning prizes for his work as a writer as he is for his film and TV work. His *Nachrichten aus der ideologischen Antike: Marx-Eisenstein-Das Kapital* focuses on a lunatic plan envisaged by the great Russian director, Sergei Eisenstein, that of course never got off the ground. In 1927 he had the idea of filming *Das Kapital* in the vein of Karl Marx and intended to do it by adhering to the literary methods used by James Joyce in his book *Ulysses*. ‘A plan with the whack of a battleship’, as Kluge pertinently remarks in the accompanying booklet to the three DVDs. It is however also a plan that could only be ‘cinemafied’ i.e. seized on by somebody like Alexander Kluge, whose films and TV work often seem to follow the same dramatic approach as Eisenstein had in mind for his Marx project, in the hope of revolutionizing the art of filmmaking. ‘The film from antiquity’, he commented in his notes, ‘created a plot out of several aspects. The “modern era film” montages one aspect out of several plots’. It offers so much to be discovered and so much you can have a good laugh at that you soon forget the time after the first few chapters. Every time you get to the end of each of the three DVDs, you are wholeheartedly surprised that it is yet again over.

— from Goethe-Institut

Still photo © Alexander Kluge



## [ Collaborators ]

Oksana Bulgakowa  
Dietmar Dath  
Hans Magnus Enzensberger  
Boris Groys  
Durs Grünbein  
Hannelore Hoger  
Oskar Negt  
Sophie Rois  
Helge Schneider  
Peter Sloterdijk  
Rainer Stollmann  
Joseph Vogl  
and others

## [ Length ]

570 min

## [ Director ]

Alexander Kluge



'S.O.S.'는 관람객들을 한강 유람선에 초대한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이 프로젝트 시나리오의 주인공들이다. 한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은 스피커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선장의 안내방송을 듣는다. 빛과 사운드로 이루어진 이 퍼포먼스의 구성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서부터 현재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까지 근대화와 세계화 이데올로기 만들어 내는 신화적 '파사드'들 이면의 증인이 될 것을 관람객들에게 요구한다. 잊혀져 가는 것을 함께 떠올리고 사라질 것 그 이후 생겨날 것을 깨뚫어 보도록 한다. 이 밤배를 타고 유람을 기대한 여가시간은 결국 자신의 감각과 욕망의 환영이 불일치하고 투쟁하는 시간이 된다. 빛과 속도의 차이를 수용하며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로 초대된 서로 다른 삶의 선택을 한 사람들은 서치 라이트의 파사제이자 모스 부호의 해독자가 된다. 거부의 몸짓과 불화의 상황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관람객은 보이지 않는 선장과 '미확인 발광체'가 된 유람선 퍼포먼스의 주체가 되는 주객체 전도의, 뮤비우스의 띠를 타고 있다.

임민욱은 개인 혹은 집단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증위 등을 비판적 언어를 통해 실험하고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근대화 과정 속의 속도와 기억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질문은 설치, 퍼포먼스, 영상, 교육 프로그램, 출판 작업 등으로 이루어지고 항상 공간과 신체의 개입방식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방식을 유도한다. 작가 특유의 이러한 감수성은 현재 예술의 개입 범위와 가능성 을 더욱 확장해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다.

[ 작가와의 대화 ]      임민욱  
4.10 금

개원디자인예술대학 자코뱅

퍼포먼스 / 연극 / 다큐멘터리 / 장소특정작업  
한국  
3.29 일 / 3.30 월  
(시간, 장소 추후 인터넷공지)  
한강유람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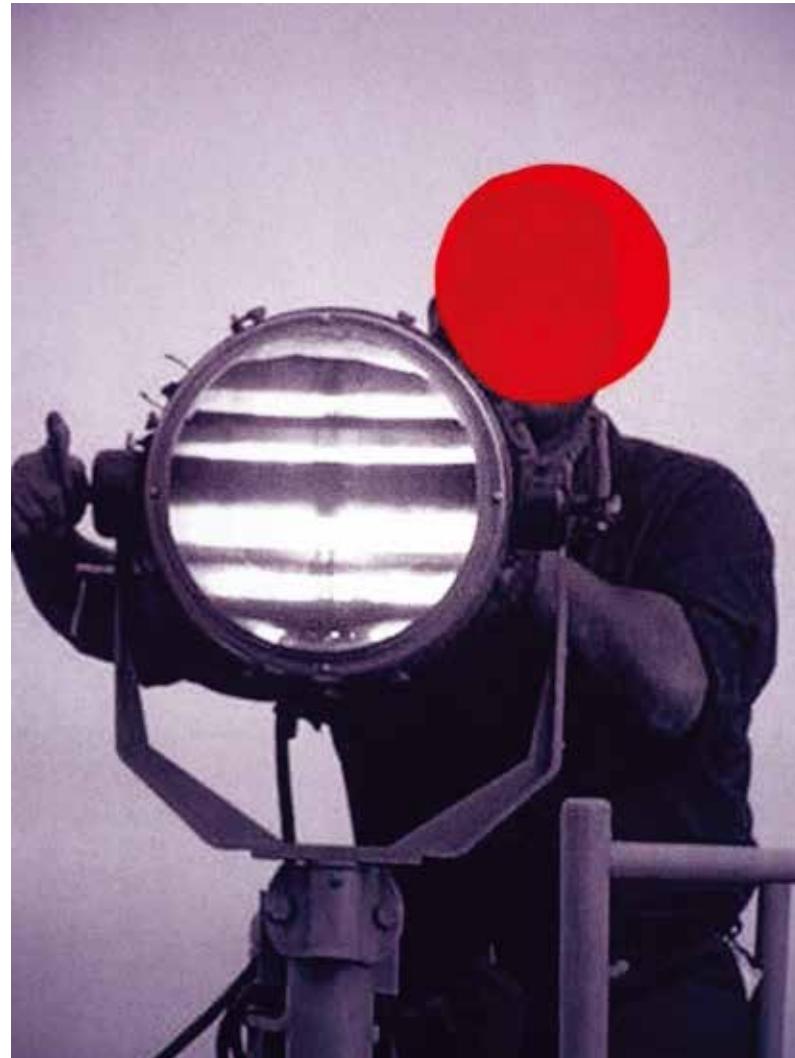
Performance / Theater  
Documentary / Site-Specific Work  
Korea  
3.29 Sun / 3.30 Mon  
(time & place to be updated on the website)  
Han River Cruise

Photo © minouk lim

Spectators will be invited to a cruise boat on the Han River. And they will be guided to take a view of the façades of Seoul on the boat. The sound or the stories will slip through the facades, the products of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triggered by so-called Miracle on the Han River and the Han River Renaissance Project. The boat will ask them not only to accept the difference between light and speed but also to find hidden meanings behind the facades. What signals are going to be sent from the discordant landscape and disapproved memories, which will disappear into the foam of the boat, to the spectators?

Then they will become the members of a temporary community that evokes and shares the memories and embarks on its own journey.

{ Artist Talk }      minouk lim  
4.19 Fri  
Kaywon School of Art and Design  
Jacobin



[ 조명감독 ]  
박용석  
[ 촬영감독 ]  
제창규  
[ 사진 ]  
AC MAPO  
[ 코디네이터 ]  
경기문화재단 다원예술분야  
지원작품  
[ 음향감독 ]  
오영훈  
[ 음악감독 ]  
장영규  
[ 총감독 ]  
임민욱  
[ 사장 ]  
이병재, 박재영  
[ 조작감독 ]  
K-SAD 다원예술공연 지원작품

빌 모리슨  
·디케이시아·

영화가 사실을 기록하고 보존한다는 믿음은 이 영화로 인해 조라하게 허물어진다. 수십 년 동안 자료실에 방치되어 있던 주인 없는 필름들은 시간의 폭력적인 진리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디케이시아·는 이러한 시간의 권력에 저항하는 대신 그 엄청난 파괴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불안정한 필름 표면의 화학작용에 의해 부식되고 부패되고 변형된 이미지들은 단지 사소한 쇠퇴에 머물지 않고 이미지의 기호작용을 넘어 탈언어적인 영역 속으로 우리의 감각을 내던진다.

베를린영화제 실험영화상 수상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빌 모리슨과 악기의 조율을 의도적으로 불안정하게 하여 악보를 넘는 불협화음의 과정으로 오케스트라 음악을 변형시킨 마이클 고든의 이 공동작업은 영화와 음악의 수십 년간의 안일한 조화적 연분을 과격하게 뒤흔든다. 음계를 벗어나는 비현실적인 소리의 파도와 상해되고 왜곡된 사실의 기록은 그들의 충돌이 연출하는 환각적 효과조차 초월하여 인간 이성의 왜소함과 소멸의 진리를 차갑게 직시한다. 당혹스런 희열과 경이로운 혐오 사이에서 20세기 최고의 대중오락이라는 영화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55악기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링컨센터, 캐네디센터, 로얄알버트홀에서의 상영/콘서트에 이어, 페스티벌봄에서는 녹음된 음악과 영상이 선보여진다.

- [1] Footprints / The Film of Her / Ghost Trip /  
The Mesmerist
- [2] Decasia
- [3] Light Is Calling / Outerborough /  
The Highwater Trilogy / Who By Water

Bill Morrison  
*Decasia*

[1] 57 min

**Footprints** (1992, 6 min, B/W & color, 16mm)  
The evolution of cinema as the evolution of modern man. Sound design by Jim Farmer

**The Film of Her** (1996, 12 min, B/W, 35mm)  
Unseen films, and unsung lives: An unrequited celluloid romance is consummated in the vaults of the Library of Congress. And primitive cinema is saved from oblivion. Music by Henryk Gorecki and Bill Frisell

**Ghost Trip** (2000, 23 min, B/W, 35mm)  
A man is shown his car, which he drives until it can be driven no more. Sound design by Michael Montes

**The Mesmerist** (2003, 16 min, color, 35mm)  
A melting revision of James Young's *The Bells* (1926) starring Lionel Barrymore and Boris Karloff. Music by Bill Frisell

[2] 67 min

**Decasia** (2002, 67 min, B/W, 35mm)  
A symphony of decaying images. Music by Michael Gordon

[3] 66 min

**Light Is Calling** (2004, 8 min, color, 35mm)  
A meditation on the nature of random collisions, as seen through the roiling emulsion of an ancient film. Music by Bill Frisell

**Outerborough** (2005, 9.5 min, 35mm)  
A trolley trip across the Brooklyn Bridge in 1899 becomes a unit for measuring time. Silent.

**The Highwater Trilogy** (2006, 31 min, 35mm)  
Before I Enter / How to Pray / What We Build  
Ancient newsreel footage of storms, floods and icebergs produce a combination of anxiety and awe when viewed in the wake of recent meteorological disasters and ongoing environmental collapse.  
**Who By Water** (2006, 18 min, DVD)  
Ship passengers are depicted staring wordlessly into the camera's lens. All of their numbers have by now been called. And in staring back at them, we contemplate our own fate. Music by Michael Gordon

Still photo © Bill Morrison



실험영화/음악

미국

- [1] 3.27 금 6pm / 3.30 월 7:50pm
- [2] 3.28 토 6pm / 3.31 화 9:20pm
- [3] 3.29 일 7:50pm / 4.1 수 6pm  
하이퍼텍나다

Experimental Film / Music

USA

- [1] 3.27 Fri 6pm / 3.30 Mon 7:50pm
- [2] 3.28 Sat 6pm / 3.31 Tue 9:20pm
- [3] 3.29 Sun 7:50pm / 4.1 Wed 6pm  
Hypertheque NADA

퍼포먼스와 비디오를 위주로 작업하는 독일 출신의 아바 메이어-켈러의 작품 속에는 연극의 모든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 무대와 관객, 웃음과 공포, 행위와 시선, 몰입과 자기성찰... 문제는 이들의 경계가 모두 허물어진다는 것이다.

메이어-켈러는 무대도 객석도 아닌 공간에 관객들을 자유롭게 방목(?)시키고 그 사이에서 거창하게 계획된 사건들을 아무 말없이 실행에 옮긴다. 그 행위란 바로 작고 예쁜 체리들을 차례대로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디선가 (아마도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보았음직한 방식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따라 할까 걱정이 되는 창의적인 방법도 있다. 화학이나 능지처참 등 문명의 가장 오래된 처형 방식으로부터 가스실에서의 독살과 같이 아직 가시지 않은 역사 속의 외상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사고로부터 007영화에 나온 매우 특정한 살인방법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다양하면서도 동질적이고, 식상하면서도 충격적이다. 심각하면서도 장난기 넘치는 인간의 본연적 잔혹성 앞에서 관객은 박장대소와 끔찍한 충격사 이로 두서없이 오간다. 죽음을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 작품을 연출한 이바 메이어-켈러는 퍼포먼스와 비디오 작업을 위주로 하는 독일출신의 작가로서, 제롬 벨, 크리스틴 드 스메 등과 함께 작업해왔다. 이번 페스티벌 공연에서는 이리나 뮐러(Irina Müller)가 퍼포머로登장한다.

퍼포먼스 / 시각미술  
독일  
4.8 수 8pm / 4.9 목 8pm  
LIG L 스페이스

Cherries have tender skin, meat and a kind of bone inside them. Their juice is red like blood. When you treat them like humans sometimes treat other humans, then they become human themselves or at least animate objects, which invite you to identify yourself with them.

Inspired by fairy tales, where sometimes objects come to life and so become a projection screen for your own experiences and fantasies. In the performance Death is Certain Eva Meyer-Keller has installed sweet cherries as her protagonists. The stalks are removed from the fruit, but they are not washed or stoned. Instead they are being killed. She takes care of this business manually, in a way which turns the everyday into something brutal.

The viewer is reminded of deaths from films, but also the reality of executions, how they really happen: associations from individual and collective experience in the face of sweet death at the kitchen table.

{ Artist Talk } Irina Müller,  
Cristina Blanco,  
Geum Hyung Jeong  
**4.8 Wed 9pm**  
LIG Art Hall

— 1 —



A Performance-based  
Life Cycle

1979, Swiss, dancer, choreographer  
Currently based in Berlin  
She has been working as a performer in various projects with Thomas Lehmen, Eva Meyer-Keller and has presented her own work in various venues.

{ Production }  
Eva Meyer-Keller  
{ With friendly support by  
Vooruit Gent, Stuk Leuven  
{ Thanks to }  
Alexandra Bachzetsis  
Juan Dominguez  
Mette Edwardsen  
Cuquí Jerez  
Martin Nachbar  
Rico Repentein

[ 출연 ]



백현진은 청명한 가을 하늘에 'THE END'란 자막이 오버랩 되는 헛장면을 일시적으로 반복 경험하면서 느꼈던 공포스럽고 평온하며 우울한 감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기록하길 원했다.

영화 'THE END'는 시작과 중반 부분의 시퀀스가 누락된 상태에서 시작되고 진행되다 급작스럽게 끝이 나는 네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다. 각 에피소드는 다른 에피소드와 동떨어진 이야기로 진행되지만 모든 에피소드의 마지막 것은 클로즈업된 배우의 표정을 1분 이상 보여주다가 'THE END'란 자막이 뜨며 끝나는 동일한 형식을 취한다. 박해일, 엄지원, 류승범, 문소리 등이 출연한다.

미술가이며 음악가인 백현진은 2007년 밀라노 비아파리니 갤러리와 2008년 서울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음반으로 어어부 프로젝트의 '손익분기점'(1997), '개, 럭키스타'(1998), '21세기 뉴헤어'(2000), '복수는 나의 것 OST'(2002), '침치 월드'(2004), 독집음반으로 '반성의 시간'(2008) 등을 발표하였다.

*THE END*, the Movie of Hyun Jhin Baik, a musician and visual artist, is composed of four episodes. Each episode tells totally different story from other episodes, but all episodes end with closed-up faces with the subtitle of 'THE END'. Hae-il Park, Ji-won Uhm, Seung-beom Ryu, So-ri Moon are featured in this movie.

Still photo © Hyun Jhin Baik



극영화 / 개념미술 / 음악  
한국  
3.30 월 9pm  
하이퍼텍나다

Film / Conceptual Art / Music  
Korea  
3.30 Mon 9pm  
Hypertheque NADA

{ 각본 / 감독 }	{ 미술팀 }	{ 미술팀 }	{ 미술팀 }	{ 미술팀 }
백현진	[ 조감독 ]	최연식, 김영희, 최효선	남지웅	[ 박해일 매니저 ]
[ 각색 / 프로듀서 ]	박수진	[ 조명팀 ]	[ 스태프 ]	배성은, 손보현, 박태익 (유메인 엔터테인먼트)
제수진	[ 제작실장 ]	송현석, 조일수, 이제수,	권오석, 이윤호	[ 엄지원 매니저 ]
[ 출연 (기나다순) ]	이승복, 오영립	전영석, 장문진	[ 타이포그래피 ]	김상일, 박경일
김학선, 류승범, 문소리,	[ 현장편집 ]	[ 조명B팀 ]	슬기와 민	(웰메이드 스타엠)
박해일, 성준서, 엄지원,	양진모, 강경화	박정우, 안영기, 박관규	[ 포스터 디자인 ]	[ 오광록 매니저 ]
오광록, 장균	[ 의상 ]	[ 영상장비 ]	조태상	이한림, 박관주,
[ 촬영 ]	최윤선, 함현주	지성용, 정훈, 이종오,	[ 제작지원 ]	이상호 (싸이더스 HQ)
김우형	[ 분장 ]	조기훈 (무브먼트)	김성민, 윤창숙, 김선호	[ 장소협찬 ]
{ 미술 }	진민경	[ 발전자 ]	[ 연출지원 ]	인천 바로코사
김준	[ 연출부 ]	손용훈, 탁민	김관후	임원걸
{ 음악 }	채병용, 윤세영, 류선광	[ 녹음팀 ]		[ 도움주신 분들 ]
장영규	[ 제작부 ]	황정호, 금경배	장소영	가나다순 —
[ 조명 ]	김명, 최지훈	[ 의상팀 ]	박선은	강진희 (서울영상위원회),
홍승철	[ 촬영팀 ]	김진선	한강명원지구	강혜진, 구동희, 김성희,
{ 동시녹음 }	홍재식, 구태진, 전주일,	[ 현장편집 ]	문용성, 박경일, 은상훈	김지운, 김학수, 박관수,
이성운 (SPEED SOUND)	김상우	(웰메이드 스타엠)	김우현	박찬욱, 안수현, 오기민,
[ 편집 ]	[ DIT ]	[ DI ]	[ 문소리 매니저 ]	이성현, 이용기 (HFR),
성수아	차효준, 송연우, 노병욱	심정운, 이창오	이경민 포레 흥대점	이재혁, 이한승, 이환구,
		신충섭, 이해민	[ 심 앤터테인먼트 ]	관리사무소
				최진웅, 흥상수, 황정민

식생활과 관련된 모든 생산 활동이 대기업의 이윤에 봉사하게 된 오늘,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목가적인 농장만을 상상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양식의 균원에는 이제 육중하고 조직적인 어셈블리라인이 있다. 기계들의 끔찍한 반복적 절차가 작동하는 ‘문명의 비언어적 이면’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취하는 모든 음식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모두가 권리하게 혹은 안이하게 망각하는 곡류와 육류의 생산 과정을 다시 우리의 의식으로, 식탁으로 불러들인다. 소를 몰락시키는 거대한 살육통, 닭을 해체하는 어셈블리라인, 인공수정을 위한 가짜 교접, 태지 수유를 위한 일률적인 건축 구조 등의 면밀한 기계적 공정을 카메라는 말없이 직면한다. 그것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단지 기계의 무지막지함에 대한 경이나 식사의 폐력을 저해하는 단순한 불편함에 머물지 않는다.

생산공장의 지루하고도 잔혹한 반복적 패턴들을 기록하는 영화적 시선은 그 이면의 묵언적인 또 다른 진실의 총위를 향한다. 인류의 오래된 생존법을 관통하는 뭔가의 묵시적인 낯설음이 생명의 탄생과 소멸에 대한 성찰의 태도를 기초단계로 되돌려 놓는다.

시네포эм / 다큐멘터리  
오스트리아  
3.28 토 7:20pm / 3.30 월 6pm / 4.1 수 7:20pm  
하이퍼텍나다

Cinepoem / Documentary  
Austria  
3.28 Sat 7:20pm / 3.30 Mon 6pm / 4.1 Wed 7:20pm  
Hypertheque NADA

Welcome to the world of industrial food production and high-tech farming! To the rhythm of conveyor belts and immense machines, the film looks without commenting into the places where food is produced in Europe: monumental spaces, surreal landscapes and bizarre sounds – a cool, industrial environment which leaves little space for individualism. People, animals, crops and machines play a supporting role in the logistics of this system which provides our society's standard of living.

*Our Daily Bread* is a wide-screen tableau of a feast which isn't always easy to digest – and in which we all take part. A pure, meticulous and high-end film experience that enables the audience to form their own ideas.

Photo © Nikolaus Geyrhalter



[ Produced by ]  
Nikolaus Geyrhalter Filmproduktion  
GmbH  
[ In coproduction with ]  
ZDF / 3sat  
[ Commissioning editor ]  
Inge Classen  
[ Producers ]  
Nikolaus Geyrhalter  
Markus Glaser  
Michael Kitzberger  
Wolfgang Widerhofer  
Nikolaus Geyrhalter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Amsterdam 2005  
— Special Jury Award  
Ecocinem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thens 2006  
— Best Film  
Visions du Reel, Nyon 2006  
— Special John Templeton Prize  
Hot Docs Toronto 2006  
— Honourable Mention,  
— Special Jury Prize  
— International Feature

Geum Hyung Jeong  
*7 Ways*

연극으로부터 시작하여 무용으로 창작 영역을 넓힌 정금형은 기존의 작품들을 연장하고 작품들 간의 상호작용을 새로운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다원예술의 기대주이다. 오브제와 몸, 움직임과 인형, 자위행위와 예술적 창작의 묘한 접점에서 정금형은 자신이 행하는 관능적이고도 분열적인 행위들의 수행자이자 관람자가 된다. 그가 탐험하는 어렴풋한 증간계는 관객의 관음증적 욕망을 유혹한다.

“프랑켄슈타인의 육체처럼 짜집기된 극의 실체는, 무용극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인형 대신 몸을 주인공으로 삼는 전치(轉置)된 인형극’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형태적 결과일 뿐, 작업에서 작가가 미적 목표로 삼는 바는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작가의 몸짓이 주체와 타자 사이의 전통적 위계를 희롱한다는 데 있다.”

— 미술평론가 임근준

정경형은 연극을 공부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전문사 과정을 졸업한 후 시각미술과 공연미술을 혼합하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개척하고 있다.

퍼포먼스 / 인형극 / 무용 / 마일  
한국  
4.8 수 8pm / 4.9 목 8pm  
LIG 아트홀

**Performance / Puppet Theater / Dance / Mime  
Korea**  
**4.8 Wed 8pm / 4.9 Thu 8pm**  
**IIG Art Hall**

Photo © Geum Hyung Jeong

Is it masturbation or ontological struggle? On the interface between the object and the body, the movement and the puppet, Geum Hyung Jeong abandons herself to the erotic border of sexuality and the artistic creation. Through these, she becomes the actor and the spectator also for her own erotic and disruptive behaviors. Vague inter-world she explores seduces the spectator's desire to peep.

{ Artist Talk } Irina Müller,  
Cristina Blanco,  
Geum Hyung Jeong  
**4.8 Wed 9pm**  
**LIG Art Hall**

**4.8 Wed 9pm**  
**LIG Art Hall**



인간의 ‘살’에 심리체계가 존재하는가? <비욘드>는 하나의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해법을 아시아와 유럽의 상호소통에서 찾는다.

성남아트센터와 페스티벌 봄이 공동 제작하고 선보이는 또 하나의 국제 공동 작업 <비욘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무용수들 간의 소통을 통해 몸과 기억에 대한 질문들을 던진다. 4명의 아시아 무용수들과 다국적으로 이루어진 4명의 EG | PC 무용단 소속 무용수들은 피상적 모티브의 조합에 머물지 않는 심층적 교류의 여정을 이룬다. 일본의 부토, 미디어 설치, 움직임 등에 관한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공감대와 차이를 감성적 언어로 전환한다.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나오는 몸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무용수 각자의 기억과 개성을 이 과정의 원천이자 재료가 된다. 여기에 건축의 최전선에 선 조민석의 세트 디자인, 이 새로운 활력소를 더한다. <비욘드>는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 몸과 정신의 교집을 통해 소통의 한계들을 넘는 (<beyond>) 예술의 영역을 꿈꾼다.

이 작품은 네덜란드의 ICK 암스테르담과 보르네오코, 한국의 페스티벌 봄과 성남아트센터, 그리고 인도의 아타카라리 센터가 공동으로 제작한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한국에서의 초연 이후, 파리 시립극장, 비엔나 임펄스탄즈 페스티벌, 네덜란드 오페라 하우스 등에서 선보여 질 예정이다.

[ 살롱 ]      에미오 그레코 | PC,  
                        ‘전통과 혁신’

4.11.토 2:00 pm / 테이크 아웃 드로잉 아르코

[ 워크샵 ]      에미오 그레코 | PC,  
                        ‘부토 워크샵’

3.22 일-26 목 / 성남아트센터연습실

에미오 그레코 | PC,  
‘더블 마인드 | 더블 스킨’

3.30 월-4.3 금 / 성남아트센터연습실

현대무용 / 연극 / 부토 / 건축

이태리, 네덜란드, 인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4.10 금 8pm  
성남아트센터 오페라극장

‘Does the psychology of the flesh exist?’ *Beyond* starts with a group of 8 characters that represent different types of people, different cultures coming from different societies. With 4 dancers of Asia and 4 dancers of the EG | PC company, a working process will be followed based on dialogue and imbedded in a workshop program and a new creation. The dance and the discourse that will be generated from the different backgrounds, body cultures and personalities, will work as stimulus and nourishment for the creative process. ‘How far we can go into their character, background to construct a common dance journey without fusion.’

— Pieter C. Scholten & Emio Greco

*Beyond* is an ICKamsterdam project with dance company Emio Greco | PC in collaboration with Ganesa Productions (Seoul), Seongnam Arts Centre (Seoul), Festival Bo:m (Seoul), Attakkalari Centre for Movement Arts (Bangalore) and Borneoco (Amsterdam).

[ Salon ]      Emio Greco | PC,  
                        Tradition and Innovation

4.11 Sat 2pm

Takeout Drawing Arko

[ Workshop ]      Emio Greco | PC,  
                        Buto Workshop

3.22 Sun-26 T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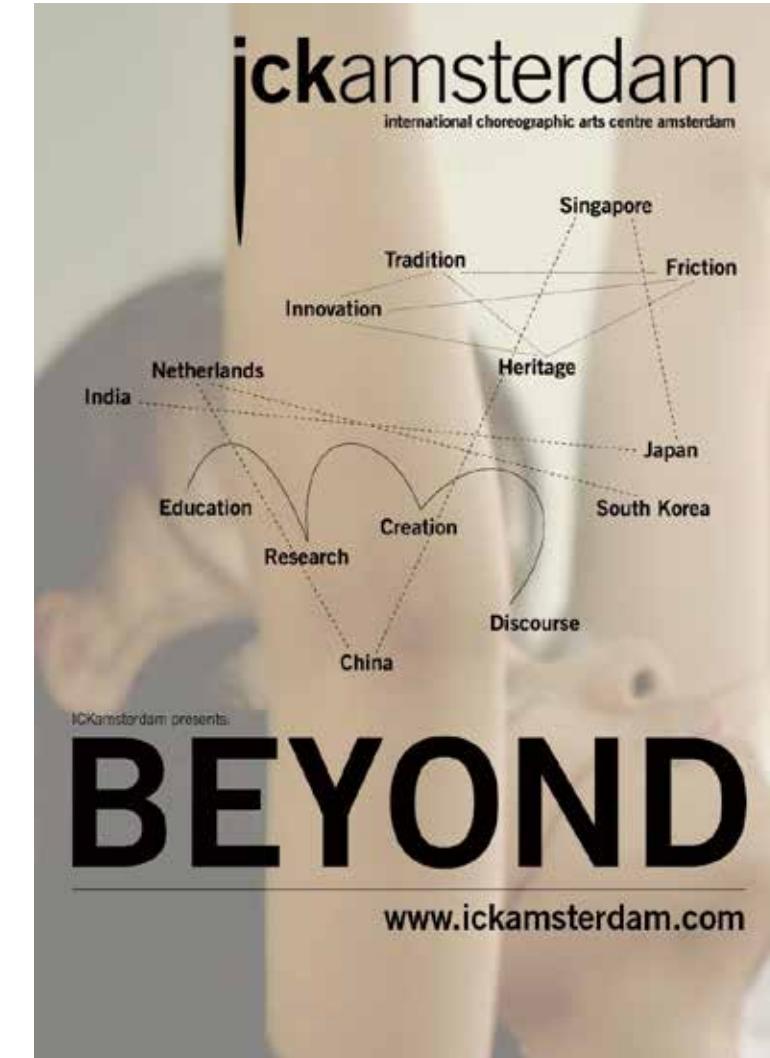
Seong Nam Arts Center Studio

Emio Greco | PC,  
Double Mind | Double Skin

3.30 Mon-4.3 Fri

Seong Nam Arts Center Studio

Photo © Igor Mendizaba



[ Production ]  
ICKamsterdam  
[ Co-production ]  
Festival Bo:m Seoul,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 Premiere ]  
10 April 2009,  
Festival Bo:m Seoul, Korea

ICKamsterdam is supported by  
the Netherlands Fund for  
Performing Arts+ (NFPK+) and  
the municipality of Amsterdam.

eg|pc      ickamsterdam

[ 공동주최 ]  
성남아트센터  
[ 협력기관 ]  
이탈리아 문화원

[ Choreography ]  
Emio Greco | Pieter C. Scholten  
[ Lighting, Set and Sound Concept ]  
Emio Greco | Pieter C. Scholten  
[ Set design ]  
Minsuk Cho  
[ Lighting design ]  
Henk Danner – Sander Loonen  
[ Costume Design ]  
Clifford Portier  
[ Artistic assistant ]  
Matteo Graziano

[ Dancers ]  
Victor Callens  
Vincent Colomes  
Sawami Fukuoka  
Emio Greco  
Qiwo He  
Ajeesh Kannanthera Balakrishnan  
Jee Won Kim  
Barbara Meneses Gutierrez  
Ming Poon

Modern Dance / Theater / Buto / Architecture  
Italy, Netherlands, India, China, Japan, Singapore, Korea  
4.10 Fri 8pm  
Seong Nam Arts Center Opera House

오프닝 리셉션

3.27 금 10pm

테이크 아웃 드로잉 아르코

{ 포럼 }  
·드라마로부터의 탈출:  
포스트드라마틱 시어터  
3.28 토 3pm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포럼 }  
·마르크스, 서울에 오다  
3.28 토 8pm

테이크 아웃 드로잉 아르코

주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기획 김남수, 서현석

1867년 출간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동서양에 걸쳐 절대적인 학술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끼쳐 왔지만, 그 동안 실질적인 판매량은 저극히 제한적이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조차 누구나 다 중요시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읽지 않은 책이 «자본론»이다. 130년이 넘게 흐른 오늘 이 고서가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자본론»의 판매량이 최근 들어 3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트리에의 마르크스 생가를 찾는 관광객 역시 급증하고 있다. 2006년에는 리미니 프로토콜이 ‘칼 마르크스: 자본론 제1권’을 제작했고, 2009년엔 알렉산더 클루게가 드디어 ‘이념적 고물로부터의 뉴스: 마르크스-에이젠후테인-자본론’을 완성, DVD로 출간하였다. 1999년에 하워드 진이 발표한 일인극 ‘마르크스, 뉴욕에 가다’는 계속 무대에 오르고 있다. 프린斯顿대학의 헤롤드 제임스 교수의 말대로 ‘마르크스의 르네상스’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자본론»을 손에 들고 사진을 찍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런 열정은 세계화와 국제 금융 위기를 생각할 때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어쩌면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자본주의의 붕괴는 오늘날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피어 스타인브록 독일 재무부장관이 시사한 듯이 말이다.

페스티벌 봄의

아카이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페스티벌 센터’

3.27 금-4.12 일

테이크 아웃 드로잉 아르코

Opening Reception

3.27 Fri 10pm

Takeout Drawing Arko

{ Forum }  
Postdramatic Theater  
3.28 Sat 3pm

Arko Arts Theater Main Hall

{ Forum }  
Marx in Seoul  
3.28 Sat 8pm

Takeout Drawing Arko

The term ‘post-dramatic theater’ was introduced by Hans Thies Lehmann, a German theater researcher, who started his academic career at the Institute of Applied Theatre Studies (Justus-Liebig-University Giesen). This institute stands out due to its combination of practice and theory. Graduates of the Institute of Applied Theatre Studies work in a variety of theatrical careers, with the majority creating new work, for example René Pollesch, Tim Staffel, Moritz Rinke, Showcase beat le mot, She She Pop, Jochen Roller, Hofmann & Lindholm, Otmar Wagner, Florian Feigl, Thomas Martius and the very successful group Rimini Protokoll. In the workshop Olav Schroeer (DAAD lecturer c/o Ewha Woman’s University) and Prof. Joon Suh Lee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 Literature c/o Ewha Woman’s University) like to talk with Rimini Protokoll about their ‘theatre of experts’, interpreted by non-professional actors who are called ‘experts’, and about their dramatic works, which take place in that grey zone between reality and fiction.

Festival Center

3.27 Fri-4.12 Sun

Takeout Drawing Arko

페스티벌 봄 2009  
국제다원예술축제  
2009.3.27-4.12

[ 디렉터 ]

김성희

[ 사무국장 ]

정은미

[ 수석 코디네이터 ]

최승현

[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

김혜옥

[ 프로덕션 코디네이터 ]

손지원

[ 운영 / 티켓 ]

김송이

정은진

[ 마케팅 ]

이승환

[ 홍보 ]

박민주

[ 온라인 홍보 ]

홍종우

박경미

박정혁

이영철 (계원대)

윤서원

지민

최고은

[ 부대행사 ]

조희선

[ 영상제작 ]

이진원

[ 기술지원 ]

SMG tech

기술감독 —

이종일

기술행정 —

김수영

무대감독 —

김재홍

무대인력지원 —

M-A.C.S

[ 인쇄물 / 웹사이트 디자인 ]

슬기와 민

[ 웹사이트 구축 ]

(주) 컬쳐앤파트너스

네오드림

[ 외국어 번역/감수 ]

한수옥

마진화

[ 도움 주신 분들 ]  
Olav Schroeer (이화여대)  
형건 (EBS)  
박동현 (명지대)  
고원 (서울대)  
서동진 (계원대)

김남수

김민관

김해주

마정화

서현식

임근준

허명진

조영식

김철리

이만동

성무량

김기홍

박혜경

오세형

박성은

박성혜

박혜선

조재용

이영철 (계원대)

문지윤

[ 아르코 예술극장 ]

극장장 —

최용훈

행정담당 책임전문위원 —

장정진

시설담당 전문위원 —

이한신

공연기획팀

팀장 —

조형준

티켓시스템/홈페이지운영 —

송윤정

홍보자/온라인 소식지 발행 —

황금실

하우스매니저 —

권진희

기술지원팀

팀장 —

최형오

무대 —

천월우, 김예곤, 이동선

조명 —

이인연, 신호, 진용남

음향 —

김동수, 도명호, 홍승욱

문지윤

[ 아르코시티극장 ]

극장장 —

이종원

운영팀

팀장 —

강쌍구

시설 전반 —

윤보국

회계/총무 —

이경미

공연팀

기획/홍보 —

정소은, 심현주, 박진희,

강성용

기술감독 —

이주환

조명 —

이동진

음향 —

안우철

음향 —

이한규

무대 —

오승준

[ 성남아트센터 ]

사장 —

이종덕

문화예술 본부장 —

노재천

홍보마케팅 —

김용운, 노상환, 이자영,

김수미, 김영관, 정보람

무대기술 —

김인현

무대감독 —

이현우, 조남용, 최민우

장치 —

박동경 차장, 김경식, 김승언,

서재우, 전재근

기계 —

최영삼, 김상욱, 최재윤

조명 —

권순업, 최욱, 임건우,

권동우, 최병선

음향 —

김상균, 임우재, 김영화,

신문수

행정 —

정경한

공연기획 —

이의신, 최유정

하우스매니저 —

권대민, 조명현, 박혜영

[ LIG아트홀 ]

극장장 —

김병현

공연사업팀장 —

조성주

음악PD —

이경미

장진아

홍보매니저 —

최원정

기술감독 —

문원섭

음향감독 —

박범진

하우스매니저 —

서예진

Festival Bo:m 2009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Art  
Festival  
2009.3.27-4.12

[ Director ]  
Seong Hee Kim  
[ Director Assistant ]  
Jung Eun Mi  
[ Production Coordinator ]  
Ji Won Sohn  
[ Management / Ticket ]  
Song Yi Kim  
Eun Jin Jung  
[ Marketing ]  
Charlee  
[ Promotion ]  
Ziru Bak  
[ Online Promotion ]  
Jong Wu Hong  
Gyoung Mi Park  
Chang Hyuk Park  
Seo Won Yun  
Min Ji  
Ko Eun Choi  
[ Event ]  
Joysun  
[ Trailer ]  
Jin Won Lee  
[ Technical Support ]  
SMG Tech  
Technical Supervisor —  
Jong Il Lee  
Technical Administrator —  
Soo Young Kim  
Stage Manager —  
Jea Hong Kim  
Stage Staff —  
M-A.C.S.  
[ Design ]  
Sulki and Min  
[ Website Programming ]  
Culture and Partners Inc.  
Neodream  
[ Translations ]  
Su Ok Ham  
Jung Hwa Mah

{ Thanks to }  
Olav Schroeer  
(Ewha Womans Univ.)  
Gun Hyung (EBS)  
Dong Hyun Park (Myongji Univ.)  
Won Ko (Seoul National Univ.)  
Dong Jin Seo (K-SAD)  
Nam Soo Kim  
Min Gwan Kim  
Hae Ju Kim  
Jung Hwa Mah  
Hyun Suk Seo  
Geun Jun Lim  
Myung Jin Huh  
Young Jik Cho  
Chul Li Kim  
Man Dong Lee  
Mu Ryang Sung  
Ki Hong Kim  
Hae Gang Park  
Sae Hyung Oh  
Sung Eun Park  
Sung Hye Park  
Hae Sun Park  
Jae Yong Cho  
Young Chul Lee (K-SAD)  
Ji Yoon Moon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리미니 프로토콜	R] 5만원
	S] 4만원
	A] 3만원
포스트 엔터테인먼트	R] 4만원
	S] 3만원

**아르코시티극장 대극장**

벨기에-한국 댄스 프로젝트	R] 4만원
	S] 3만원
서현석	R] 3만원
	S] 1만원

**성남아트센터 오페라극장**

에미오 그레코   PC, '지옥'	R] 6만원
	S] 3만원
	A] 1만원
에미오 그레코   PC, '비욘드'	R] 6만원
	S] 3만원
	A] 1만원

**LIG 아트홀**

정금형 ..... 전석] 1만5천원

**LIG L Space**이바 메이어-캘러 ..... 전석] 2만원  
크리스티나 블랑코 ..... 전석] 1만원**하이퍼텍나다**빌 모리슨 [1] [2] [3] ..... 각 · 전석] 7천원  
더글라스 고든 & 필리페 파레노 ..... 전석] 7천원  
니콜라스 게이어할테 ..... 전석] 7천원  
알렉산더 클루게 ..... 전석] 1만원**댄스 패키지**에미오 그레코 | PC, '지옥' ..... R]  
+ 에미오 그레코 | PC, '비욘드' ..... R]  
+ 벨기에-한국 댄스 프로젝트 ..... R]  
..... 원가 16만원  
..... 할인가 8만원**동일 공연 10인 이상 단체 예매**

..... 총 가격의 20% 할인

**아방가르드 베스트 패키지**리미니 프로토콜 ..... R]  
+ 포스트 엔터테인먼트 ..... R]  
+ 서현석 ..... R]  
+ 더글라스 고든 & 필리페 파레노 ..... 전석]  
..... 원가 12만7천원  
..... 할인가 10만2천원**커팅에지 패키지**이바 메이어-캘러 ..... 전석]  
+ 크리스티나 블랑코 ..... 전석]  
+ 정금형 ..... 전석]  
+ 빌 모리슨 [2] ..... 전석]  
..... 원가 5만2천원  
..... 할인가 4만6천5백원**마르크스 패키지 Marx Package**리미니 프로토콜 ..... R]  
+ 니콜라스 게이어할테 ..... 전석]  
+ 알렉산더 클루게 ..... 전석]  
..... 원가 6만7천원  
..... 할인가 6만원

{ Regular Ticket Prices }

**Arko Arts Theater Main Hall**

Rimini Protokoll	R] 50,000 KRW
	S] 40,000 KRW
	A] 30,000 KRW
Forced Entertainment	R] 40,000 KRW
	S] 30,000 KRW

**Arko City Theater**

Belgium-Korea Dance Project	R] 40,000 KRW
	S] 30,000 KRW
Hyun Suk Seo	R] 30,000 KRW
	S] 10,000 KRW

**SeongNam Arts Center Opera House**

Emio Greco   PC, <i>Hell</i>	R] 60,000 KRW
	S] 30,000 KRW
	A] 10,000 KRW
Emio Greco   PC, <i>Beyond</i>	R] 60,000 KRW
	S] 30,000 KRW
	A] 10,000 KRW

**LIG Art Hall**

Geum Hyung Jeong	All] 10,000 KRW
------------------	-----------------

**LIG L Space**

Eva Meyer-Keller	All] 20,000 KRW
Cristina Blanco	All] 10,000 KRW

**Hypertheque NADA**

Bill Morrison [1] [2] [3]	each · All] 7,000 KRW
Douglas Gordon & Philippe Parreno	All] 7,000 KRW
Nikolaus Geyrhalter	All] 7,000 KRW
Alexander Kluge	All] 10,000 KRW

{ Package Prices }

**Dance Package**

Emio Greco   PC, <i>Hell</i>	R]
+ Emio Greco   PC, <i>Beyond</i>	R]
+ Belgium-Korea Dance Project	R]
	..... Total 160,000 KRW
	..... Discounted 80,000 KRW

{ Group Price }

**Group with more than 10 people**

.....	20% Off
-------	---------

**Avant Garde Best Package**

Rimini Protokoll	R]
+ Forced Entertainment	R]
+ Hyun Suk Seo	R]
+ Douglas Gordon & Philippe Parreno	All]
	..... Total 127,000 KRW
	..... Discounted 102,000 KRW

**Cutting Edge Package**

Eva Meyer-Keller	All]
+ Cristina Blanco	All]
+ Geum Hyung Jeong	All]
+ Bill Morrison [2]	All]
	..... Total 52,000 KRW
	..... Discounted 46,500 KRW

**Marx Package**

Rimini Protokoll	R]
+ Nikolaus Geyrhalter	All]
+ Alexander Kluge	All]
	..... Total 67,000 KRW
	..... Discounted 60,000 KRW

{ Reservation }

[www.festivalbom.org](http://www.festivalbom.org)

{ How to Buy }

**Package & Group Tickets:**  
On-line Reservation Only  
Regular Tickets:  
On-line / Boxoffice

{ Festival Bo:m Membership }

**Members get free subscription to Festival Bo:m Magazine, access to the quick and easy ticket purchase program and free delivery of publicity materials.**

{ Contact }

Festival Bo:m Office  
T 02 2051 1126-7  
F 02 538 7663  
[ganesakorea@hotmail.com](mailto:ganesakorea@hotmail.com)

Everyday HAPPY~

# 한강유람선



LIG for Tomorrow

LIG손해보험 50년,  
고객 여러분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100년도, 고객의 든든한 희망이 되겠습니다

희망에 투자합니다 LIG 손해보험  
www.LIG.co.kr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타워 • 고객센터 : 1544-0114

신속한 사고처리에 다양한 서비스까지  
**LIG 마직카**

상해, 질병 등 다양한 보장을 하나로~  
무배당 **LIG 웰빙보험**



## 1 { 하이퍼텍나다 }

[www.dsartcenter.co.kr](http://www.dsartcenter.co.kr)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

동숭아트센터 본관 1층

T 02 766 3390

## 2 { 아르코시티극장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7

T 02 3668 0012

## 3 { 아르코예술극장 }

[artstheater.arko.or.kr](http://artstheater.arko.or.kr)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0

T 02 760 4840-3

## 5 { LIG 아트홀 }

[www.ligarthall.com](http://www.ligarthall.com)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T 02 6900 3900

## 6 { 성남아트센터 }

[www.snart.or.kr](http://www.snart.or.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

T 031 783 8000

